

Vol 7. 2017년 2월 27일

Check Point



FI  
Weekly



Fixed Income 전병하

02 3779 8633

byunghajeon@ebestsec.co.kr

# 줄어드는 美 연준 자산 만기

Part I 주간 Review & Preview

Part II 주간 Issue 분석: 미국 연준의 QE 종료 이후 자산 변화

Part III Weekly Check Point



## Executive Summary

### Review: (2017.02.20~2017.02.24)

- 국내: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내 50년물 발행을 내달 중 시행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플래트닝 되어 있는 장기물 구간의 금리커브를 보다 스티프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발언을 계기로 장기물 금리가 보다 확대되었으며 장단기금리차가 보다 확대되었다. 목요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하였으며 경기에 대한 개선된 인식을 드러내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확인했다. 시장금리는 연준의사록이 3월 금리인상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 데다 금리를 동결시키며 주 후반 되돌림이 발생하였다.
- 선진국: 주 중반 발표된 연준 의사록은 3월 금리인상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 미국 금리는 전체적으로 하락압력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던 금리 수준이 되돌림을 보이는 구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르펜이 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어 발생하는 변동성과 이탈리아에서는 마테오 렌치 총리가 지난주 제기한 5월 조기 전당대회, 그리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지는 수순에 민주당의 소수파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오성운동이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으로 정치적 변동성이 금리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했다.
- 신흥국: 주간 강세를 보인 국가들은 금리를 75bp 추가로 인하한 브라질을 비롯하여 그간センチ멘트가 악화되었던 그리스, 터키, 멕시코 금리가 하락했다. 그리스는 IMF와의 채무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멕시코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트럼프 정책 속도가 다소 완화된 점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터키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정국을 장악해 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 Preview: (2017.02.27~2017.03.04)

- 금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주간이다.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를 비롯하여 국내 금리결정역시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제지표와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 FOMC에서 연준위원들의 Blackout period를 회의 개최 전 두번째 토요일로 앞당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주가 연준위원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된다.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장단기금리차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주요 중앙은행 이벤트

일자	국가	이벤트	내용
2월 20일	미국	로레타 메스터 연설	미국 경제는 굳건한 토대 위에 있으며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할 때
2월 21일	일본	구로다 하루히코 연설	해외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BOJ 정책금리를 올리기에는 이르다
2월 22일	미국	닐 카시카리 연설(투표권)	미국이 원치 않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기 전까지 경제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 4% 성장률은 낮은 생산성과 인구통계학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현실화
2월 23일	미국	패트릭 하커 연설(투표권)	세계개편안과 무역정책 변화를 경제전망에 포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2월 22일	미국	존 윌리엄스 연설	낮은 자연이자율은 금융안정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2월 22일	일본	구로다 하루히코 연설	국채 매입에 장애물 없으며 시장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다
2월 23일	미국	제롬 파월 연설	경제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한 점진적인 긴축 정책이 적절, 정책은 체계적이어야 하지만 자동적이어서는 안된다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 금통위와 FOMC 의사록을 앞둔 경계감, 주 후반 금리 하락

국내 채권금리는 3년물 1.655%, 10년물 2.135%로 시작하였다. 프랑스발 정치리스크가 여전히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우호적인 가운데 국내 금리는 주 초반 상승흐름을 보였다. 기재부차관의 3월 50년물 발행계획 발표 및 플레트닝되어있는 국내 장기물 구간을 스티프닝 하겠다는 발언은 장기금리가 보다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시장금리는 연초이래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장기물을 중심으로 박스권 상단으로의 움직임이 발생했다. 주 중반 예상했던 대로 FOMC 의사록에서는 명확한 3월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고 같은 날 오전 한국은행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예상과 같이 금리를 현행 1.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있었던 주 후반부터 금리는 되돌림을 시작했다. 금리가 주 초반부터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금리 하락은 저가매수 차원에서의 유입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연준 의사록과 금통위 금리 동결이 빌미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물 보다는 장기물 영역이 보다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장기물에서는 2거래일 연속 금리가 하락했다. 단기물에서는 국내통화정책이 연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인하보다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상방압력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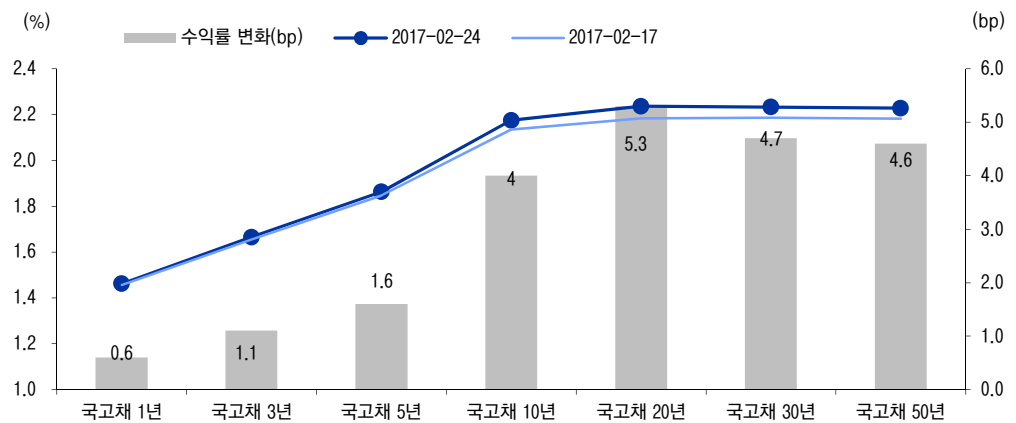
그림1 국고채 금리 동향과 장단기금리차 동향

그림2 회사채 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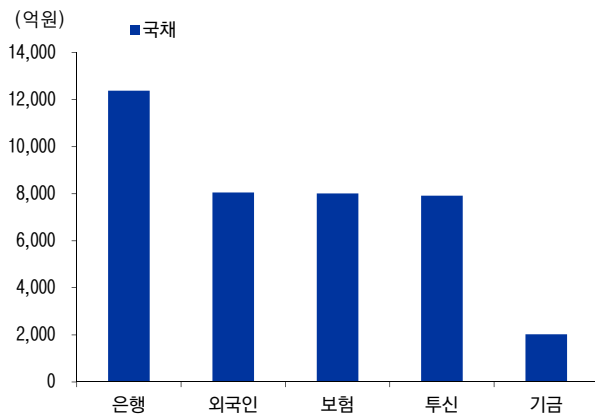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국고채 수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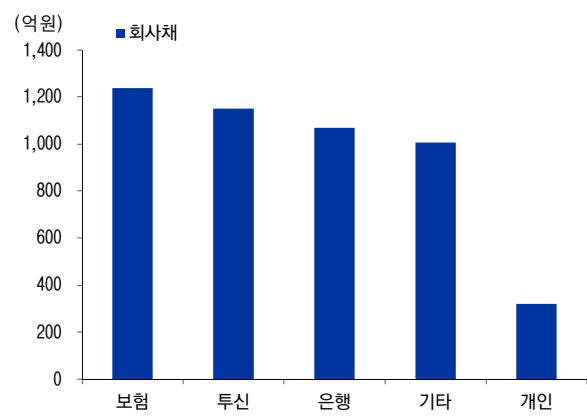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주간 국채 매수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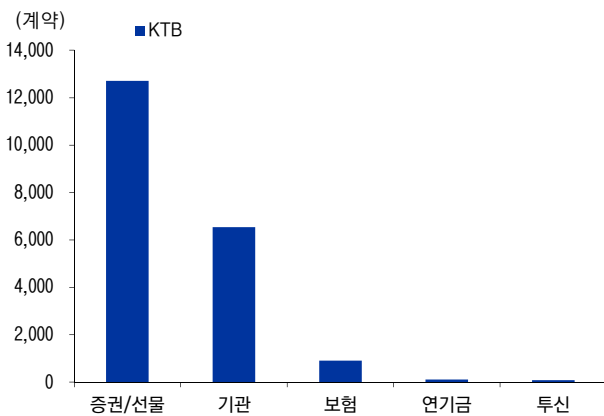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간 회사채 매수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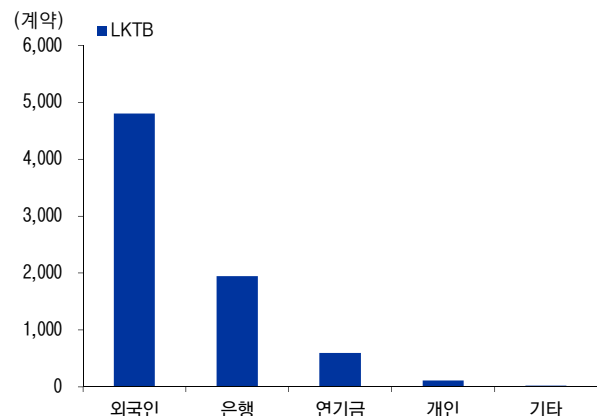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간 국채선물(KTB) 매수상위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간 국채선물(LKTB) 매수상위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선진국: 트럼프 기대 축소, 유로존 변동성 확대

주간 미국 채권금리는 전체적인 테너에서 모두 하락압력을 받았으며 특히 장기물 구간에서 하락압력이 강했다. 트럼프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춰지는 계획 발표 등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올 8월 의회 휴회 이전까지 세제개편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1월 FOMC 의사록에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축소된 부분도 금리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로존 금리는 금주 역시 하락을 지속했다. 프랑스 대선 관련된 정치적 환경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금리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에 위클리에서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가 제안한 조기 정당대회를 통한 조기총선 추진이 민주당 내부의 분열로 이어지며 이탈리아의 정치적 변동성이 보다 확대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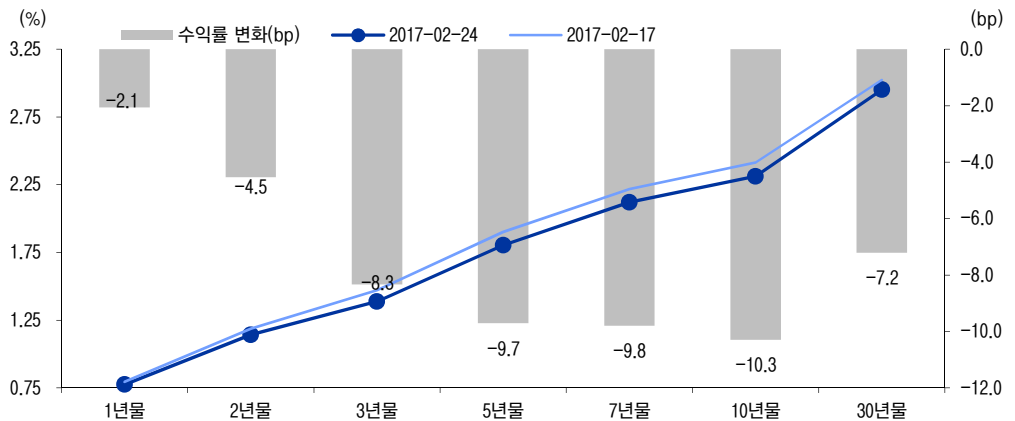
마테오 렌치 측에서 제시한 조기 정당대회 제안을 소수파가 분당이라는 선택으로 대응하면서 오성운동을 비롯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다. 특히나 2016년 이후로는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 분열은 보다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다.

일본채권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개입을 주시하는 장세가 지속되었다. 글로벌 금리 하락에 따라서 소폭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23일 예정되었던 20년물 입찰결과를 두고 관망세가 주 초반에 보였다.

시장 참가자들은 국채 10년물은 0.1% 수준이 되기 이전에 일본은행이 시장개입에 나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구간에서 일본은행이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발생했던 일본은행 오퍼레이션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는 2월 중 일본은행이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서 축소된 점이 20년물 입찰결과의 호조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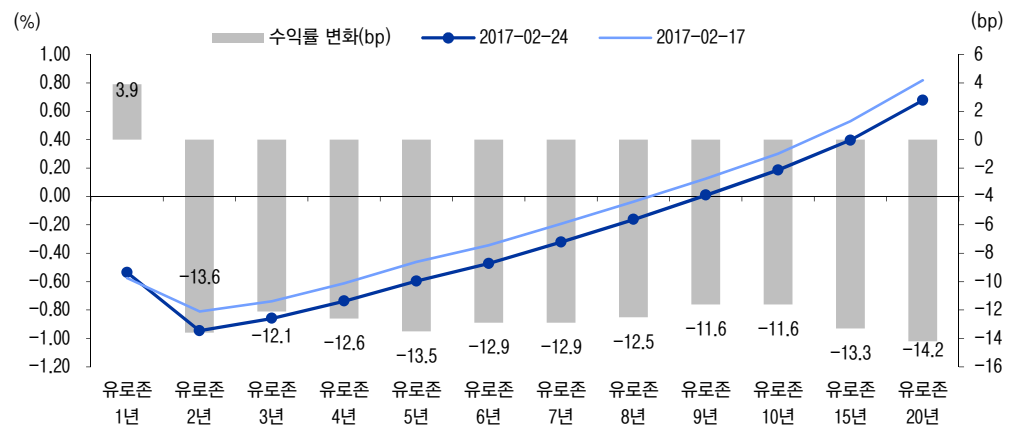
20년물 입찰결과의 호조에 따라서 시장 심리가 개선되었고 결과적으로 주간 기준으로 초장기채 구간이 보다 금리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8 주간 미국 국채 수익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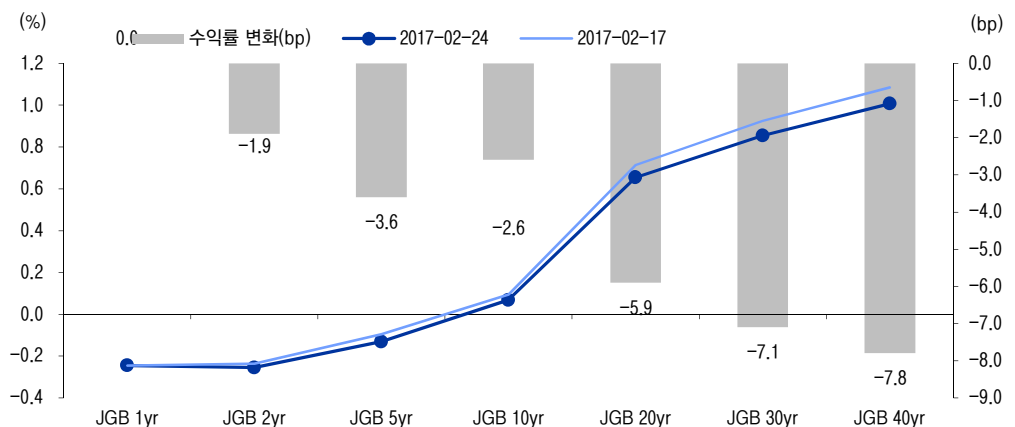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간 유로존 채권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주간 일본 국채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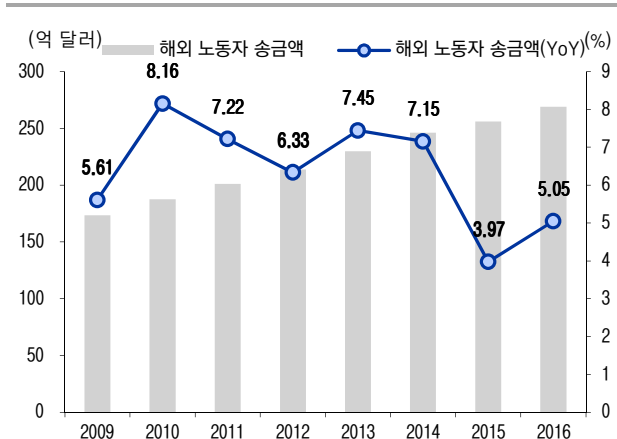
## 이머징 시장: 그리스 채무협상 진전, 멕시코, 터키 등 금리 반락

주간 강세를 보인 국가들은 금리를 75bp 추가로 인하한 브라질을 비롯하여 그간 센터먼트가 악화되었던 그리스, 터키, 멕시코, 필리핀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그리스는 IMF와의 채무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멕시코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트럼프 정책 속도가 다소 완화된 점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터키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정국을 장악해 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필리핀은 2월 들어서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필리핀 경제는 급성장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3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 Tetangco총재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많다. 올해 Tetangco총재는 임기가 만료되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3차 연임 제안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필리핀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올해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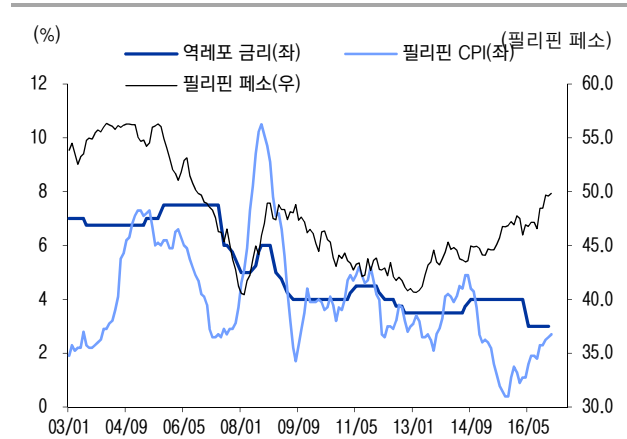
필리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지난주에 부각되면서 금리는 상승했는데, 이번주에는 총재의 인터뷰 내용이 금리 하락의 트리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총재는 BSP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미국 연준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미국 통화정책을 고려해서 금리 시나리오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싱크를 맞춰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통해 1:1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는 통화당국이 이자율에 민감한 은행의 재무상태표에 미칠 영향과 이자율 변화에 따른 은행의 민간섹터로의 대출 변화가 만들어줄 생산성 변화,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스탠스를 언급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림11 필리핀 성장의 한 축인 해외 송금액 증가세 회복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인플레이션 상승과 환율 약세는 금리 상승압력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Preview: 3월 1주차 시장 전망

### 연준위원 발언, 트럼프 세제개혁안, 유로존 정치변동성 혼재

금주는 특별한 시장 이슈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 국내는 3월 초를 맞이하여 정치적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변동성 확대, 프랑스 불안감 유지 등은 글로벌 금리면에서도 우호적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기는 하지만 약속했던 3주가 지났고 조만간 트럼프의 조세개혁에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기간에 들어섰다는 점은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최근의 불신감을 되돌릴 수 있는 계기로 불리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3월 중순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종전보다는 엘런의 장의 의회증언 이후 확률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월 FOMC에서 Blackout period를 사흘 앞당기기로 했기 때문에 금주가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주가 된다. 따라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갖는 영향력은 클 수 있다. 국내 요인으로는 기재차관의 장기물 스티프닝에 대한 발언과 월말 50년물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장기금리의 잠재적 상승요인으로 판단한다.

3월 미국 금리인상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이전까지는 조심스러운 흐름을 예상한다. 금리의 상하방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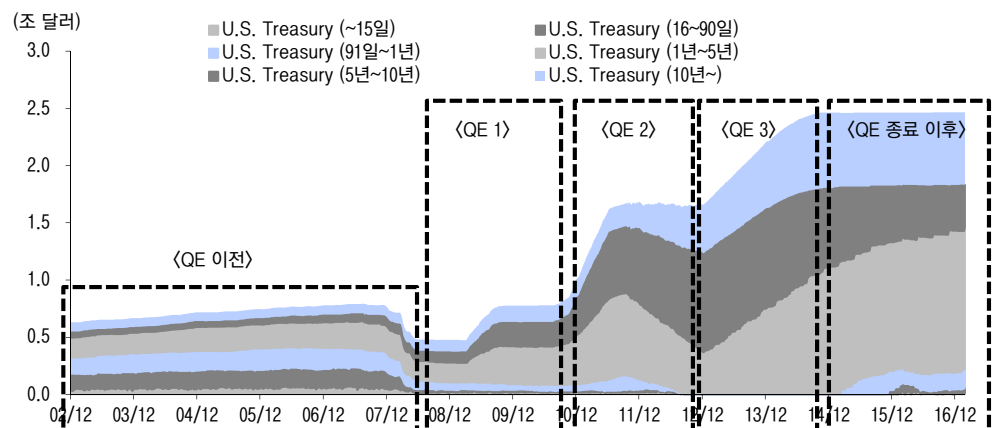
## 주간 Issue 분석 : 미국 연준의 QE 종료 이후 자산 변화

### 연준 자산구성의 변화, 단기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금리인상 이후 연준의 자산 매각이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연간전망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금년 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 자산매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근거로는 앞선 위클리 자료에서도 제시한 바 있지만 초과지준에 지급하는 이자수준이 상승하면서 연준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 통화정책 정상화의 초기 고려사항이 자산매각이 먼저였다는 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해소는 금리인상이 아닌 자산매각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점 등은 연준의 팽창된 재무상태표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연준이 보유한 자산 매각에 따라 3조달러에 육박하는 자산이 시장에 나온다면 충격이 강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연준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해보았다.

연준의 재무상태표는 양적으로도 3배가량 팽창되었지만 그 구성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양적완화 이전에 6천억~8천억달러 규모의 연준 자산이 2008년 11월 TARP를 통해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자산매입이 종료된 2014년 10월 말 시점에는 2.5조달러 가까이 팽창했다. 자산 구성 비율은 QE 이전 90일 이하가 21%, 91일~1년 이하가 22%, 1~5년이 27%를 차지했으나 QE 종료 시점에는 각각 2%, 7%, 48%로 확장되었다. QE종료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에서 두드러진 점은 1년 이하의 자산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5~10년 구간의 자산 비중이 3%p 감소하고 1~5년 구간이 2%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림13 자산매입 이전/ 자산매입 중/ 자산매입 이후 연준 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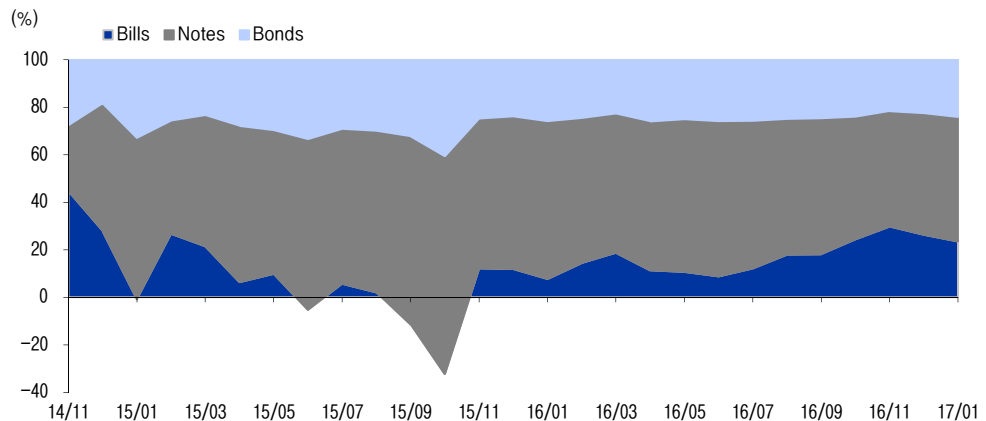
자료: NY Fed SOM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채투자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준은 만기가 도래한 자산의 채투자를 신규 발행 잔액 비중에 따라서 분배한다. 2014

년 11월부터 발행된 미 국채의 발행분포를 보면 T-bond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대신 T-bill의 발행비중이 20%가까이 늘어난 만큼 T-Note의 발행비중이 줄어들었다. 2014년 10월 말 잔고에는 T-bill 구간의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기물의 교체에 따라 T-bill 규모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Operation Twist 종료 이후 5~10년물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감소분은 5년물 이하 구간에서 일반 국채, FRN과 TIPS 등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T-bill의 발행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단기물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SOMA 잔존 채권 중 2~3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부분의 자산이 5년물 이상의 자산인 점은 앞으로 연준보유자산의 만기가 짧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현재의 발행기조를 유지한다면 완만하게 보유만기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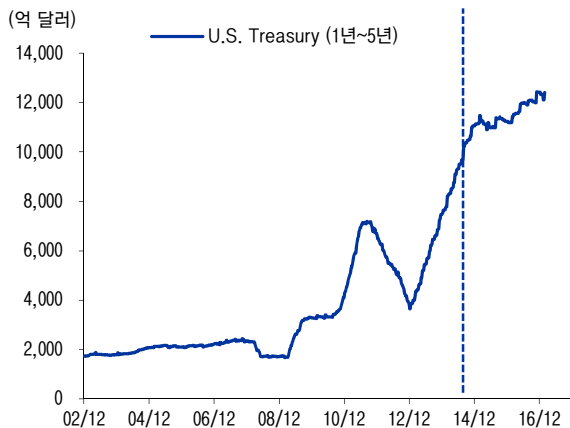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연준의 보유만기가 짧아지고 단기물 비중이 커진다면 단기물은 만기시 채투자자를 하지 않고 장기물에 국한된 자산 채투자방침을 취할 가능성이 보인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도모하는 연준에게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그림14 미국 재무부 채권 순 발행, 2014년 11월 이후 T-Bill 발행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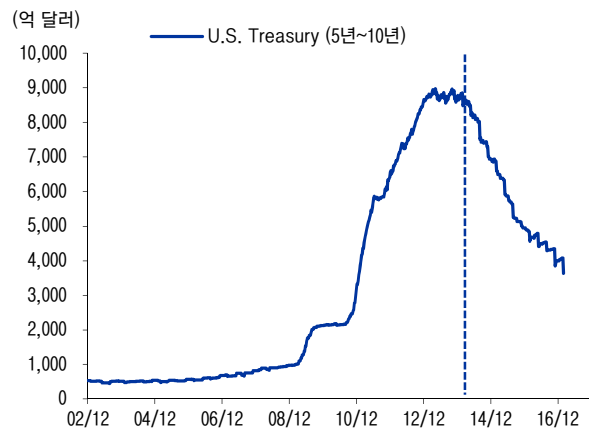
자료: SIFM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5년물 잔고 자산매입 종료이후 증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5~10년물 잔고 지속적으로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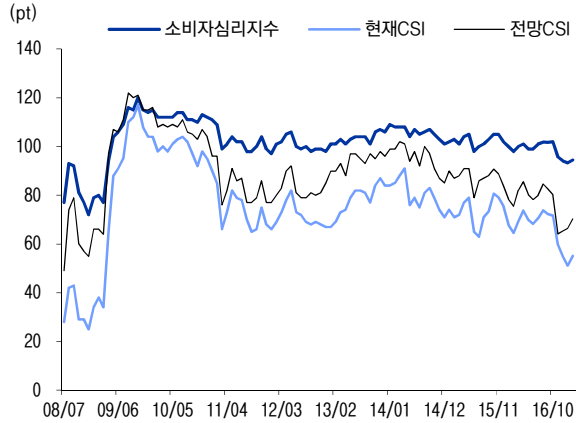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Weekly data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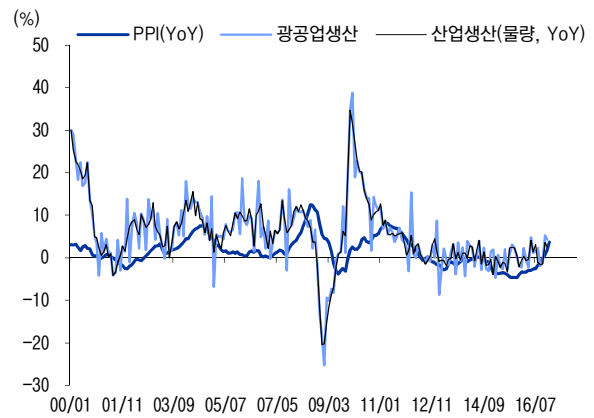
### 주간 경제지표 Review

그림17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소폭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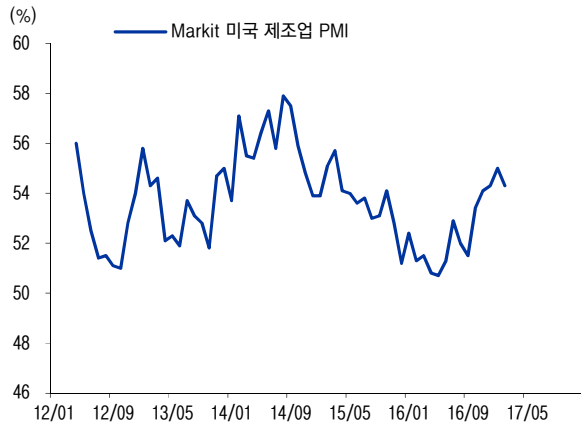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한국 PPI 상승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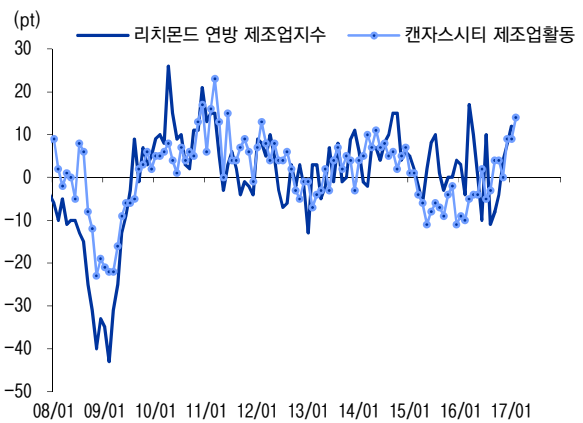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미국 제조업 PMI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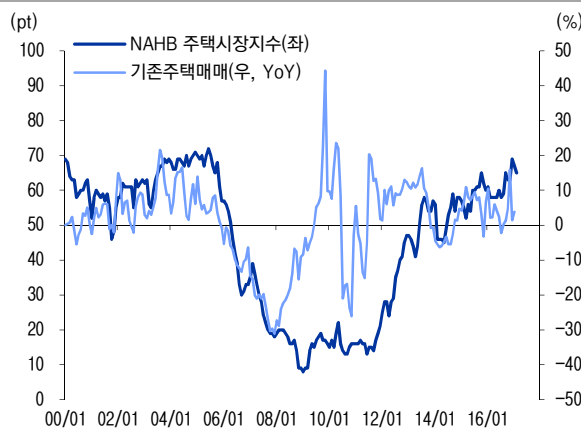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캔자스시티 제조업 서베이는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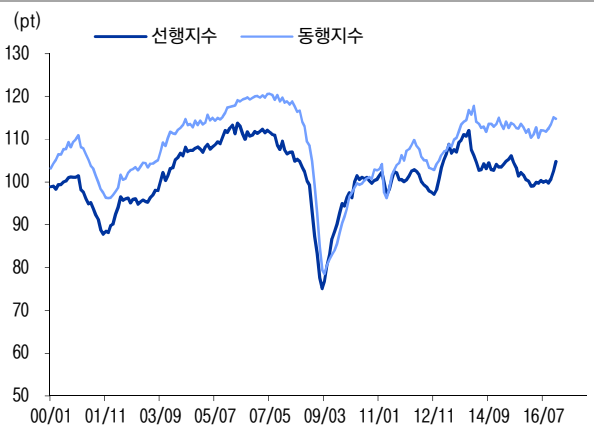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미국 기존주택매매 컨센서스 상회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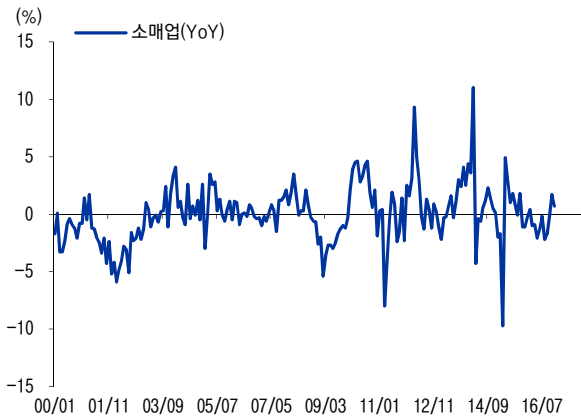
그림22 일본 심리지표 빠른 개선세 확인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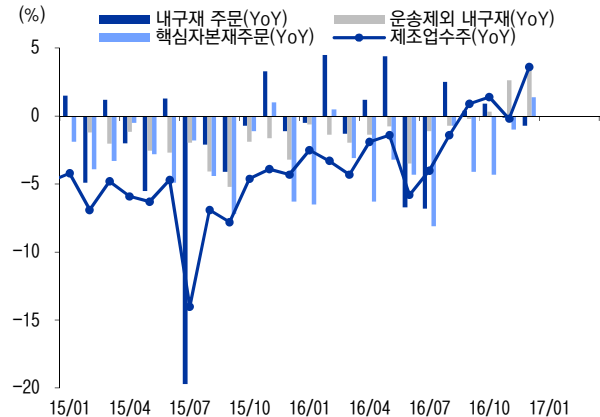
## 다음주 경제지표 & 주목할만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림23 일본 백화점소비 개선, 소매판매지표 확장세 여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미국 제조업 경기전망 혼조, 실제 지표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경제지표 발표일정

발표일자	국가	경제지표	월	단위	실제	컨센서스	이전
2월 27일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2	pt	-	108	107.9
2월 27일	미국	내구재 주문	1	%	-	1.6	-0.5
2월 28일	미국	미결주택매매(YoY)	1	%	-	-	-2.0
2월 28일	미국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2	pt	-	20	22.1
2월 28일	미국	소매판매(YoY)	1	%	-	1.0	0.7
2월 28일	유로존	CPI(YoY)	2	%	-	1.9	1.8
2월 28일	인도	GDP(YoY)	2017	%	-	-	1.3
2월 28일	미국	GDP(연간화 QoQ)	4Q	%	-	2.1	1.9
2월 28일	미국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전년비	4Q	%	-	5.30	5.27
3월 1일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2	pt	-	111.0	111.8
3월 1일	미국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2	pt	-	10	12
3월 1일	중국	제조업 PMI	2	pt	-	51.2	51.3
3월 1일	중국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2	pt	-	50.8	51
3월 1일	인도	닛케이 인도 PMI 제조업	2	pt	-	-	50.4
3월 1일	미국	개인소득	1	%	-	0.3	0.3
3월 1일	미국	PCE 디플레이터 전년비	1	%	-	2.0	1.6
3월 2일	멕시코	송금 총액	1	백만 달러	-	-	2336.4
3월 2일	한국	광공업생산	1	%	-	56.0	56.0
3월 2일	미국	ISM 제조업지수	2	pt	-	56	56
3월 2일	한국	광공업생산(YoY)	1	%	-	2.0	2.0
3월 2일	유로존	실업률	1	%	-	9.6	9.6
3월 2일	유로존	PPI (YoY)	1	%	-	3.2	1.6
3월 3일	한국	CPI(YoY)	2	%	-	1.8	2.0
3월 3일	일본	전국 CPI(YoY)	1	%	-	0.4	0.3
3월 3일	유로존	소매판매	1	%	-	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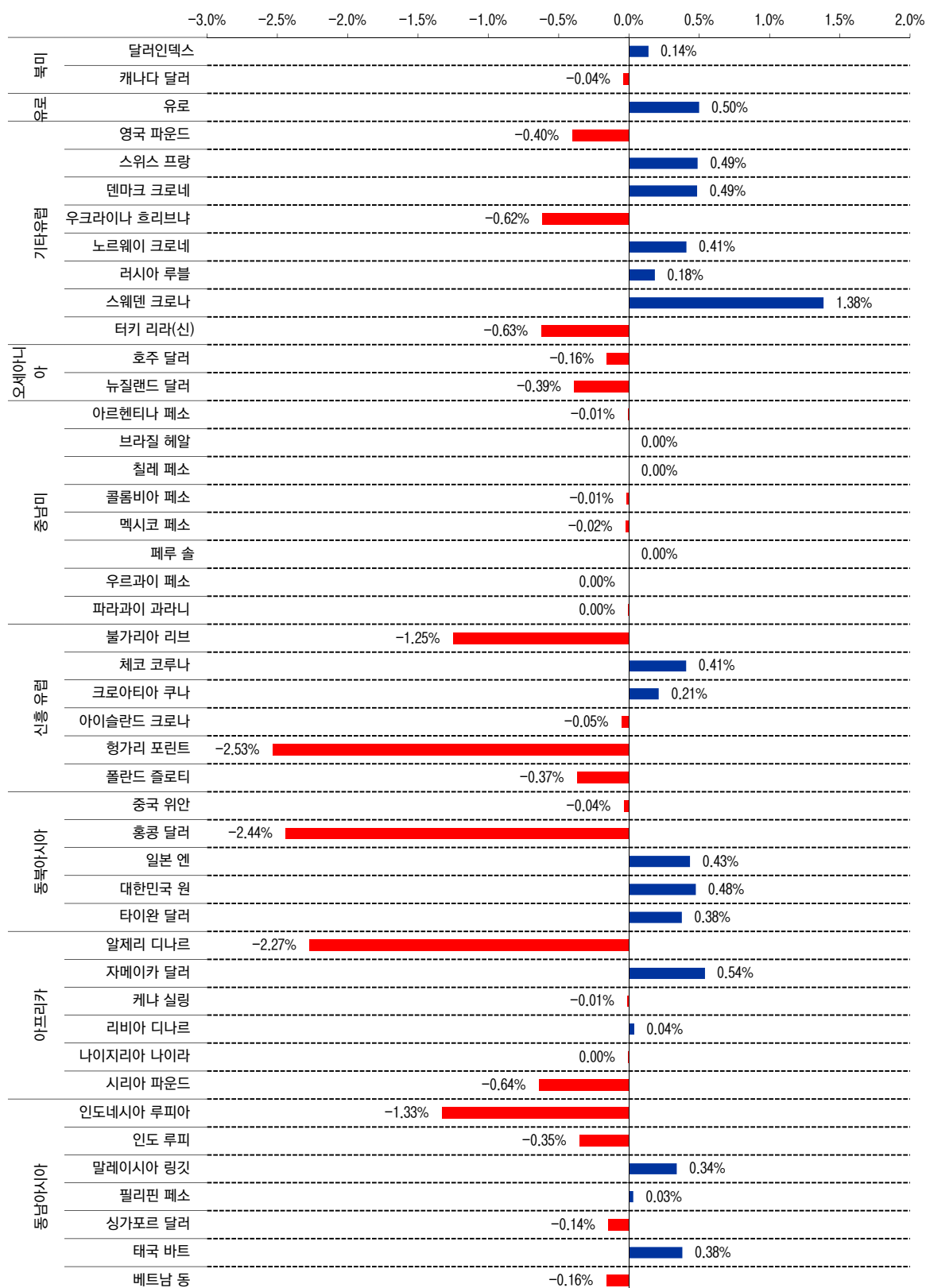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주간 지역별 환율 변화

지역	화폐	Today	1D	1W	1M	YTD	YoY
북미	달러인덱스	101.09	0.04%	0.14%	1.06%	-1.64%	3.73%
	캐나다 달러	1.31	-0.52%	-0.04%	-0.28%	-2.46%	-5.28%
유로	유로	1.06	-0.16%	0.50%	1.78%	-0.78%	3.83%
기타유럽	영국 파운드	1.25	-0.08%	-0.40%	0.92%	-1.26%	10.35%
	스위스 프랑	1.01	-0.23%	0.49%	0.90%	-1.49%	1.54%
	덴마크 크로네	7.04	-0.15%	0.49%	1.77%	-0.78%	3.60%
	우크라이나 흐리브나	26.93	0.04%	-0.62%	-1.07%	-1.37%	-1.19%
	노르웨이 크로네	8.38	0.21%	0.41%	0.76%	-3.01%	-3.82%
	러시아 루블	58.40	0.63%	0.18%	-1.44%	-4.77%	-24.32%
	스웨덴 크로나	9.04	0.49%	1.38%	2.33%	-0.64%	5.93%
	터키 리라(신)	3.61	0.76%	-0.63%	-5.21%	1.93%	22.87%
오세아니아	호주 달러	0.77	0.16%	-0.16%	-1.67%	-6.92%	-7.06%
	뉴질랜드 달러	0.72	-0.24%	-0.39%	0.65%	-4.09%	-9.09%
중남미	아르헨티나 페소	15.48	-0.16%	-0.01%	-2.97%	-2.89%	0.86%
	브라질 헤알	3.11	1.54%	0.00%	-1.88%	-5.34%	-21.41%
	칠레 페소	646.19	0.73%	0.00%	-0.45%	-3.61%	-7.17%
	콜롬비아 페소	2890.09	0.73%	-0.01%	-1.24%	-3.73%	-13.48%
	멕시코 페소	19.91	-0.18%	-0.02%	-7.53%	-3.92%	8.99%
	페루 솔	3.25	0.28%	0.00%	-1.26%	-3.46%	-7.84%
	우르과이 페소	28.30	-0.11%	0.00%	-0.08%	-3.50%	-11.74%
	파라과이 과라니	5536.20	-1.21%	0.00%	-3.42%	-4.33%	-2.92%
신흥 유럽	불가리아 리브	1.85	-0.15%	-1.25%	1.81%	-0.64%	4.00%
	체코 코루나	25.58	-0.17%	0.41%	1.80%	-0.78%	3.89%
	크로아티아 쿠나	7.03	-0.20%	0.21%	0.88%	-2.38%	1.29%
	아이슬란드 크로나	108.46	-0.96%	-0.05%	-5.97%	-4.55%	-16.24%
	헝가리 포린트	292.09	0.07%	-2.53%	1.38%	-1.08%	3.48%
	폴란드 즐로티	4.08	-0.07%	-0.37%	0.79%	-3.07%	2.78%
동북아시아	중국 위안	6.87	0.04%	-0.04%	-0.21%	-1.09%	5.17%
	홍콩 달러	7.76	0.02%	-2.44%	0.05%	0.05%	-0.11%
	일본 엔	112.12	-0.95%	0.43%	-1.28%	-4.46%	0.29%
	대한민국 원	1131.09	-0.57%	0.48%	-3.00%	-6.37%	-8.36%
	타이완 달러	30.67	-0.26%	0.38%	-2.06%	-5.09%	-7.77%
아프리카	알제리 디나르	110.36	0.07%	-2.27%	0.90%	-0.24%	3.22%
	자메이카 달러	127.76	0.06%	0.54%	-0.77%	-0.85%	5.46%
	케냐 실링	103.48	-0.05%	-0.01%	-0.50%	0.95%	1.65%
	리비아 디나르	1.43	-0.08%	0.04%	0.13%	-1.27%	2.97%
	나이지리아 나이라	314.85	-0.05%	0.00%	-0.15%	-0.15%	58.18%
	시리아 파운드	214.05	0.00%	-0.64%	0.00%	0.00%	-2.71%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루피아	13331.00	-0.15%	-1.33%	-0.22%	-1.05%	-0.60%
	인도 루피	66.83	0.00%	-0.35%	-1.84%	-2.06%	-2.53%
	말레이시아 링깃	4.44	-0.21%	0.34%	0.03%	-1.02%	5.13%
	필리핀 페소	50.19	-0.03%	0.03%	0.74%	1.09%	5.37%
	싱가포르 달러	1.41	-0.69%	-0.14%	-1.01%	-3.08%	-0.18%
	태국 바트	34.89	-0.28%	0.38%	-1.04%	-2.64%	-2.25%
	베트남 동	22816.00	-0.06%	-0.16%	1.02%	0.24%	2.09%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주간 환율 변동



주: 붉은색이 강세, 푸른색이 약세(달러인덱스, 유로, 영국 파운드, 호주달러, 뉴질랜드달러는 반대), 달러화 대비 가치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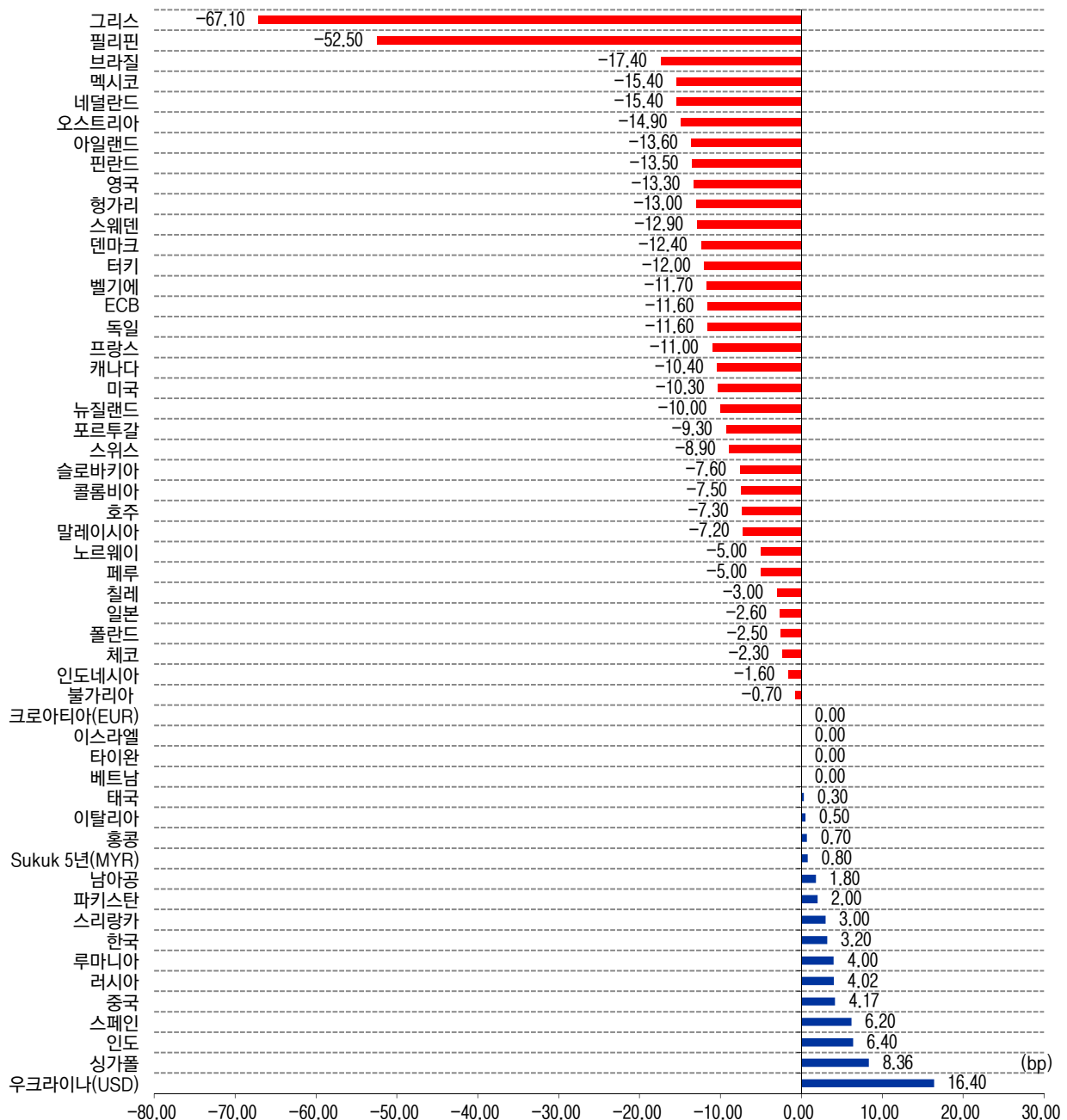
표5 국내 10 년물 수익률 변화

수익률 변화(bp)	Today	1D	1W	1M	YTD	YoY
호주	2.73	2.79	2.80	2.73	2.77	2.40
오스트리아	0.44	0.52	0.59	0.66	0.41	0.45
벨기에	0.72	0.77	0.84	0.81	0.52	0.65
브라질	10.24	10.17	10.41	10.83	11.24	15.90
불가리아	1.72	1.71	1.73	1.75	1.91	2.63
캐나다	1.61	1.67	1.71	1.83	1.72	1.15
중국	4.33	4.33	4.29	4.12	3.94	3.84
칠레	4.14	4.16	4.17	4.13	4.36	4.45
콜롬비아	6.96	6.98	7.03	6.79	7.11	9.05
크로아티아	3.38	3.38	3.38	3.38	3.38	3.38
체코	0.60	0.62	0.62	0.44	0.45	0.39
덴마크	0.50	0.56	0.63	0.49	0.31	0.51
ECB	0.19	0.23	0.30	0.46	0.19	0.15
핀란드	0.36	0.42	0.49	0.62	0.34	0.46
프랑스	0.93	0.99	1.04	0.97	0.67	0.52
독일	0.19	0.23	0.30	0.46	0.19	0.15
그리스	7.17	7.33	7.84	6.88	7.13	10.67
홍콩	1.91	1.91	1.91	1.84	1.97	1.37
헝가리	3.44	3.45	3.57	3.49	3.16	3.22
인도	6.92	6.92	6.85	6.43	6.41	7.83
인도네시아	7.53	7.57	7.54	7.56	7.97	8.29
이탈리아	2.20	2.23	2.19	2.11	1.74	1.29
아일랜드	0.94	1.01	1.07	1.12	0.75	0.99
이스라엘	2.37	2.37	2.37	2.09	2.03	1.77
일본	0.07	0.08	0.09	0.07	0.05	-0.06
말레이시아	4.02	4.04	4.10	4.13	4.23	3.95
Sukuk 5년	3.79	3.79	3.78	3.79	3.93	3.72
멕시코	7.27	7.25	7.43	7.63	7.47	6.08
네덜란드	0.48	0.55	0.63	0.58	0.34	0.31
뉴질랜드	3.23	3.26	3.33	3.27	3.33	3.01
노르웨이	1.67	1.72	1.72	1.68	1.65	1.41
파키스탄	8.17	8.17	8.15	8.18	8.52	8.60
페루	6.10	6.12	6.15	6.08	6.44	7.50
필리핀	4.31	4.92	4.84	4.94	4.63	3.83
폴란드	1.31	1.32	1.33	1.33	1.28	1.31
포르투갈	3.94	3.97	4.03	3.99	3.71	3.47
루마니아	3.64	3.66	3.60	3.51	3.47	3.36
러시아	8.35	8.37	8.31	8.39	8.46	9.87
싱가폴	2.34	2.23	2.26	2.35	2.47	2.19
슬로바키아	1.00	1.03	1.07	1.09	0.90	0.41
남아공	8.72	8.69	8.70	8.75	8.92	9.33
한국	2.17	2.19	2.14	2.13	2.05	1.82
스페인	1.70	1.69	1.64	1.54	1.33	1.62
스리랑카	12.54	12.54	12.51	12.38	12.43	11.16
스웨덴	0.55	0.61	0.68	0.74	0.54	0.48
스위스	-0.21	-0.18	-0.12	-0.05	-0.19	-0.39

타이완	1.25	1.25	1.25	1.20	1.22	0.93
태국	2.67	2.69	2.66	2.67	2.65	2.04
터키	10.81	10.70	10.93	11.34	11.50	10.83
우크라이나(USD)	8.69	8.69	8.53	8.60	8.76	10.45
영국	1.08	1.15	1.21	1.47	1.24	1.36
미국	2.31	2.37	2.41	2.51	2.44	1.75
베트남	6.20	6.20	6.20	6.30	6.40	7.40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주간 국제 10 년물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병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